6·25 50주년과 방위산업

1950년 6월 25일(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불법 기습 남침에 의해 6·25가 발발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3년여 지속된 전쟁은 인구의 15%에 이르는 436만명의 인명 피해와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으며, 더욱이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오욕만을 남기고 휴전이라는 준전투상황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6·25 당시 우리 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에 의해 남침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그해 9월초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때까지 후퇴·지연전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도 최신 전차와 전투기, 함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주요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으며, 전투력 또한 작년 서해해전에서 실전을 통해 대북우위를 입증한 바 있다.

군사력은 전쟁가능성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남북한과 같이 각자 상대의 영토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격차는 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민들의 굶주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GNP의 21%(한국 3.5%)를 국방에 투자,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총력전 태세를 구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여전히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이는 휴전 후 끊임없이 자행되어온 그들의 도발 만행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초 북한의 남침 위협과 당시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국방정책변화에 따라 방위산업을 태동시켰으며 짧은 기간내에 재래식 병기의 양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예산의 수요급증과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 압력, 재래식 병기의 수요 충족에 따른 국내 소요물량의 한계와 해외수출 부진, 기술기반의 취약에서 오는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 등 복합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방산가동률은 민수부분의 83%에 훨씬 못미치는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 지난 4월 OECD대표부에서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방산업체가 너무 많고 모든 방산업체가 민감한 물자를 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ECD회원국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방산업체 지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희망한다고 한다.

OECD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갯수 만을 가지고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 대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또한 우리의 방위산업 현황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

裵 一 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우리 방산업체 총 79개중 실제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주조립업체는 10개 미만이며 나머지 70여 업체는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중·소업체이다. 우리의 방산물자 중 모든 물자를 주조립업체에서 생산할 시 막대한 자본, 위험부담, 이중투자 등 회사 경영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한 품목이라도 연구개발과 기술을 축적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하여 부품.소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지정된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또한 OECD국가의 방산업체 중에는 우리의 주조립업체 몇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업체가 수없이 많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무기수입관련 로비 기사를 보고 국민들 생각에 방산업체도 무역대리점과 같이 로비스트에 의해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방산업체는 국가방위를 위하여 국내기술로 무기 및 장비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업체로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외로 부터 직구매를 성사시키는 무역대리점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경우 수입이 불가피하겠으나, 군사외교적 압력이나 해외 거대 방산업체의 로비가 워낙 집요하다보니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도 해외로부터 직구매되는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무기나 장비의 성능이 전투의 승패와 소중한 인명에 직결되는 만큼 가격이나 생산자와 관계없이 최고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는 소요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의 방산육성 차원에서 가능한 한 국산 무기를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성능이 뒤떨어지고 가격이 3배이상 비싸도 자국의 방산 육성과 나아가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국산 무기를 사용토록 결정하는 일본의 국방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느 방산경영인이 말했듯이 우리의 방산업체는 산소호흡기를 꽂아 놓은 상태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가사상태에 빠진 채 오직 자주적인 국방력 건설의 사명감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나 기업인,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70년대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던 의지로 되돌아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지혜와 슬기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6·25 당시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세대가 이제 환갑을 훌쩍 넘어선 지금, 분단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떠들썩한 요즈음의 매스컴을 접하며 느끼는 감회가 새롭다. 아무쪼록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과거의 아픔을 떨쳐 버리고 민족통일의 거보를 내딛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